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국 부산 선교부장 한 인 상

지금 그 선교사는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우발적인 사고로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그러나 구김살 없이 자라 온 여러 자녀 중의 아들로 처음부터 결의와 확신을 갖고 선교 사업에 임했습니다. 맨 처음 접견 때부터 만만치 않게 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된 그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읍니다. 저와 그는 선교부장과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광주에서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손목 시계를 잃었습니다. 홀로 되신 그의 모친이 선교사로 나오기 바로 전에 성탄절 선물로 사 주신 고급 시계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의미로 제 마음은 아팠읍니다. 우선 저는 그에게 모친께는 당분간 알리지 말라고 이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났고 또 한 달이 지나려 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잃어버린 시계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저는 그만 그 잃어버린 시계를 단념하기로 결심하고 선교 본부 선교사들과 비슷한 시계 하나를 사서 광주로 올려 보내기로 합의를 보았고 대금은 본부에 있는 모두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진작 그렇게 할 결 하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육만 여원을 재정 서기에게 건네 주고 이러 저러한 손목 시계를 시내에 나가는 길에 사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 시계를 광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그 선교사는 홀어머니의 애뜻한 마음에 주름살 하나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사무실 문을 나서는 재정 서기의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뭔가 곧 바로 마음에 전달되어 왔읍니다. 저는 문을 나서려던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는 조금 흥분하고 있었읍니다. “선교부장님! 시계를 찾았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월례 접견 때 제가 들은 보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

로 그가 전화로 부산에 있는 저에게 알리던 날, 아침 전도를 나서며 시내 상가를 지나치는데 강한 힘이 그를 상가 안으로 몰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막 상가 안으로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목뼈를 부러뜨릴 듯한 힘으로 누군가가 그의 목을 왼편으로 돌리더라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왼편으로 돌린 그 순간, 시계점 진열대 안에 놓인 시계 하나가 시야에 크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시계였습니다. 간단한 확인과 경찰의 협조로 시계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지 두 달만에 기적처럼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선교부장인 저는 속이 텅텅 빈 기도만 했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지만 공허한 그 기도 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우리의 최선으로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하겠다는 결의가 행동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미 주님의 응답은 주어져 있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텅텅 빈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두를 타하여 주님께 봉사하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행함으로 연결될 때라야 비로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공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 두 달이 지날 수도 있고 이 년이나 혹은 이십 년, 아니면 영원히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천진하게 웃던 그 선교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선교부장님! 그래도 저는 득을 보았는데요. 아 글세 시계 줄은 반짝반짝 광을 냈죠. 또 우리에는 잔 흠집이 있었는데 말끔히 새것처럼 손질을 해 놓지 않았겠어요.”

저도 따라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시계 우리를 뒤흔기 말도록!” 그는 마주 보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이다호주 렉스 벅 시에서 장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 교회 및 지역 소식

##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한국인 선교사

11월 선교 특별호를 맞아 한국인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지면 관계로 부산 선교부 산하 한국인 선교사는 다음호에 실겠습니다.

회 속  
와드/지부:  
목포 지부  
일자:  
1970년 10월 30일  
신교사:  
안 승연  
선교 지역:  
제1와드



장 기 흥  
출신 와드/지부:  
제1와드  
침례 일자:  
1974년 8월 3일  
개종시킨 선교사:  
테일러·이 순임  
현재 선교 지역:  
인천 와드



정 옥 희  
출신 와드/지부:  
원주 지부  
침례 일자:  
1972년 2월 7일  
개종시킨 선교사:  
최 수영·배 도전  
현재 선교 지역:  
제1와드



신 영 숙  
출신 와드/지부:  
마산 지부  
침례 일자:  
1972년 9월 29일  
개종시킨 선교사:  
Eldon J White  
현재 선교 지역:  
대전 지부



서 강 석장로  
출신 와드/지부:  
여수 지부  
침례 일자:  
1968년 10월 12일  
개종시킨 선교사:  
Robert H Slover Jr.  
현재 선교 지역:  
원주 지부

정 자  
와드/지부:  
동광주 지부  
일자:  
1974년 2월 2일  
신교사:  
Gary Miller  
선교 지역:  
제1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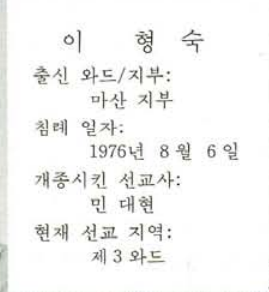
팽 영 혜  
출신 와드/지부:  
부산 지부  
침례 일자:  
1972년 12월 15일  
개종시킨 선교사:  
Kunz, Van Epps  
현재 선교 지역:  
대전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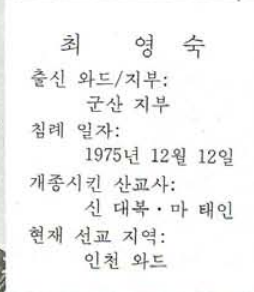
김 현 신장로  
출신 와드/지부:  
목포 지부  
침례 일자:  
1974년 10월 12일  
개종시킨 선교사:  
최 정주  
현재 선교 지역:  
면목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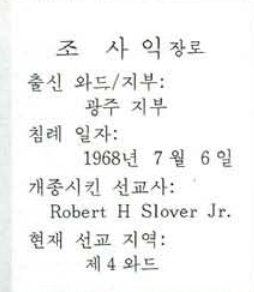
이 형 숙  
출신 와드/지부:  
마산 지부  
침례 일자:  
1976년 8월 6일  
개종시킨 선교사:  
민 대현  
현재 선교 지역:  
제3와드



최 영 숙  
출신 와드/지부:  
군산 지부  
침례 일자:  
1975년 12월 12일  
개종시킨 선교사:  
신 대부·마 태인  
현재 선교 지역:  
인천 와드



조 사 익장로  
출신 와드/지부:  
광주 지부  
침례 일자:  
1968년 7월 6일  
개종시킨 선교사:  
Robert H Slover Jr.  
현재 선교 지역:  
제4와드



영 애  
와드/지부:  
마산 지부  
일자:  
1972년 7월 21일  
신교사:  
시 비  
선교 지역:  
대전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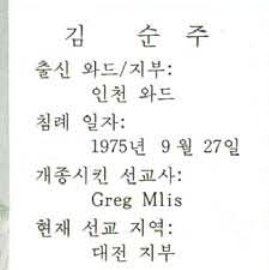
윤 복 영  
출신 와드/지부:  
마산 지부  
침례 일자:  
1975년 11월 1일  
개종시킨 선교사:  
Kent L. Perterson  
현재 선교 지역:  
인천 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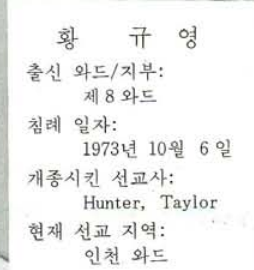
이 종 일장로  
출신 와드/지부:  
서대구 지부  
침례 일자:  
1972년 11월 24일  
개종시킨 선교사:  
Holton, Spencer  
현재 선교 지역:  
제4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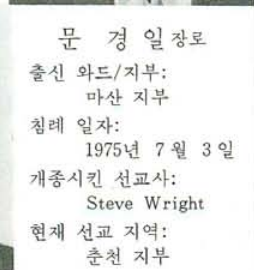
김 순 주  
출신 와드/지부:  
인천 와드  
침례 일자:  
1975년 9월 27일  
개종시킨 선교사:  
Greg Mlis  
현재 선교 지역:  
대전 지부



황 규 영  
출신 와드/지부:  
제8와드  
침례 일자:  
1973년 10월 6일  
개종시킨 선교사:  
Hunter, Taylor  
현재 선교 지역:  
인천 와드



문 경 일장로  
출신 와드/지부:  
마산 지부  
침례 일자:  
1975년 7월 3일  
개종시킨 선교사:  
Steve Wright  
현재 선교 지역:  
춘천 지부



## 신학 연구원 제 2 회 졸업식 및 입학식

지난 1977년 9월 3일 오후 5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신학 연구원은 교회 신권 지도자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많은 회원들의 축복속에 제2회 졸업식 및 제 2 학기 신입생 입학식을 성대하게 가졌다.

김 차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식에서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과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번 제 2 회 졸업식에서는 5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학생 회장으로 공로가 컸던 우 원균 형제를 비롯하여 2명의 4년 개근생과 4명의 우등생에게 각각 상장이 수여되었다.

졸업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1977년도 제 2 학기 입학식이 속행되었다. 새로 신입생 98명을 맞이하여 이 호남 원장은 입학 허가 선언을 하였으며, 신입생 이 찬영 형제가 신입생을 대표해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이 호남 신학 연구원 원장은 신입생의 자세와 졸업생의 진로를 명시하는 환영과 환송의 격려사를 하였다.

식이 끝난 후 졸업생과 신권 지도자와의 기념촬영, 4년간의 형설의 공을 치하하는 가족, 친지들의 꽃다발 증정, 잔디밭에서 우정을 나누는 가든 파티 등이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재능 발표 대회 모습

## 고 김호직 형제 18주기 추도식 갖다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망우리 고 김 호직 형제 묘소에는 유가족과 서울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과 교회 지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18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전 종철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에서 고인의 생전



상 좌: 졸업장을 수여하는 이 호남 신학원 원장. 상 우: 말씀을 하는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 하 좌: 졸업생에게 인사하는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과 서울 서 스테이크 김 창선 부장. 하 우: 제 2 회 졸업생 일동과 교수 그리고 교회 신권 지도자.

## 제 2 회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는 지난 8월 27일 제1와드에서 제 2 회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를 성대히 가졌다.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린이와 초등협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끝이어 서울 스테이크 산하 5 개 와드와 4 개 지부 초등협회 어린이들의 숨은 재능을 보여 주는 발표회가 계속되었다. 어린이와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 등 200여 명이 모여서 관람한 이 재능 발표회에서는 노래, 기악, 무용, 태권도 시범,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단은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를 통하여 서울 스테이크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에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한 바 있는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과 이 호남 서울 스테이크 부장이 추도의 말씀을 하였다. 이 호남 부장은 추도사를 통해 한국에 물몬의 씨를 심고, 두 개의 스테이크와 두 개의 선교부로 발전하게 한 지금 고인을 추도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은 제 1 와드 감독인 손 승은 형제의 기도로 모두 마쳤다.

한 인상 부산 선교부장은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 왔다.

